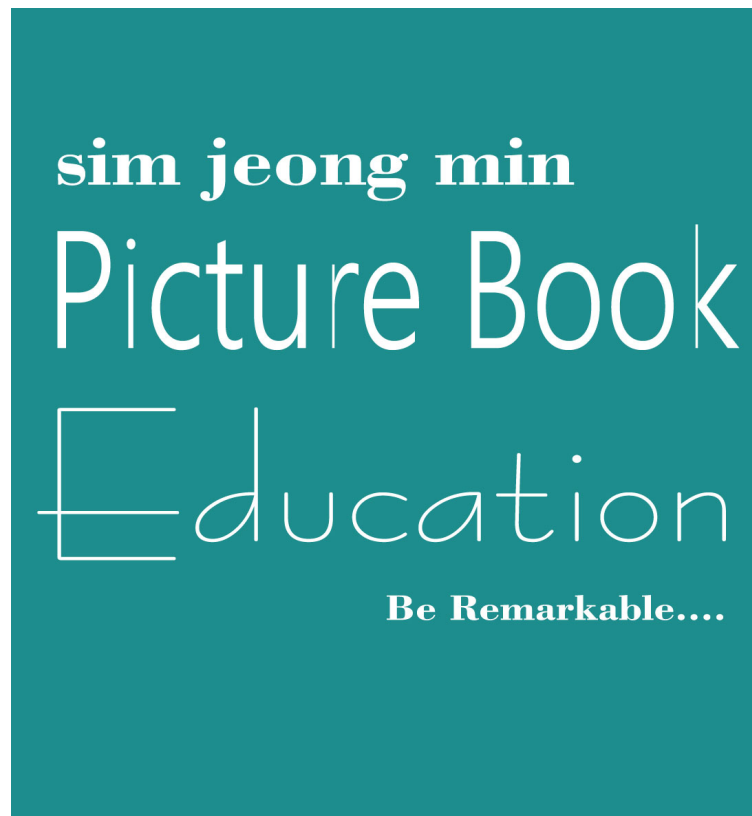


아이의 창의성 키우기 위한 부모의 생활 속 역할 (1)



자료 출처: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 개발 출판부 20140567

심정민 그림책 교육 연구소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창의성은 자유로운 놀이를 경험시키는 퍼포먼스 활동을 떠올리며 그것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성이 잘 형성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창의성을 키우는 목적은 10년간의 의무 교육의 학습 즉 지식 습득을 통해 그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키워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창의적인 머리가 있다면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창의성이 있는 아이는 1시간이면 끝낼 것을 창의성이 없는 아이는 3시간을 한다고 한다.

창의성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역시나 구분된다. 그것은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다. 크게, 창의적이지 못한 아이는 단순한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다. 반면 창의적인 아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성을 자연스럽게 알고자하기에 타당한 근거, 분석적인 발언 등의 속성에 관한 말을 한다. 창의적인 아이는 왜? 원인(이유)을 찾으려한다. 원인을 찾으면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두뇌가 자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훈련이다. 창의적 활동을 많이 경험하면 아이들의 두뇌는 창의적으로 움직이며, 단순한 기계적 학습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을 경험한 아이들의 두뇌는 다양한 사고로 움직이기 힘들다.

8세 이전에 모두 형성된다는 창의성은 학습을 하는 시기에도 적절하게 발휘를 하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주입식 암기식 학습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일이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볼 수 있지만 미국, 유럽등의 선진국형 교육 방식에는 창의성이 없이는 도무지 학습을 지식을 터득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 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통한 지식 창출, 새로운 문제 제시 등의 학습 방법이다. 이것은 분명 창의성을 요하는 방법이다. 주입식교육은 깊이를 의미를 몰라도 무조건 외우면 된다. 하지만, 자기 주도 학습과 협력학습을 통한 지식 습득 및 창출의 학습 방법은 제시된 내용에서 원인과 결과, 결과 도출에 대한 검증, 제2차 검증을 위한 가설 설정, 명확한 결과를 통한 새로운 문제 제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토론, 나만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해야하는 주제의 전문성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의 재구성 등이 모든 학업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이끌고 그 안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가져야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창의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 창조인재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창의성을 가진 자가 창조인재가 된다.]는 아주 명확한 전제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여 좀 더 폭넓게 깊이있게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은 꼭! 필요하며 학교 가기 이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 훈련 되어질 사고능력 또한 창의성이다.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부모들은 별도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부모와 자녀 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화이다. 대화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질 높은 상호작용의 대화가 아이의 지식활용과 발상능력까지도 수준 높게 발전시킨다.

창의성은 생활 속 대화가 중요하다. 다음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말한다.

1. 부모가 아이의 언행에 문제제시를 한다.

-아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부모는 궁금증으로 아이의 언행에 흥미롭게 관심을 보인다.

-우리 OO가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꼭! 꿈틀거리는 뱀같다? 근데... 뱀이 정말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는건 왜지? 다리도 없는데말야...

2.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식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어한다.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먼저 해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싫어한다. 싫어하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머리를 멈추게 된다.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듣기만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한다. 어릴때부터 엄마가 모든 것을 잘 가르쳐주면 아이는 듣기에 익숙해지고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절대 자기 스스로 움직이며 놀려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하려하고, 물어봐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으려만 한다. 이런 아이들의 장점은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무척 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는 만큼 언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부족하다.

무엇이든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자. 아이가 4살이 되면서부터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했을 때 아이는 똑똑해지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터득하게 된다.

3.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제시를 한다.

-아이들의 자신의 생활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활을 잘 살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엄마가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

-오늘 저녁에 우리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까?

등등...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부모가 모두 결정하지 말고 아이도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결정이 바로 생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는 주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나 판단력 또한 빠르게 좋아진다.

4. 작업환경을 제시한다.

-아이들에게 중요한것은 가정의 환경이다. 아이의 방에 장난감이 가득하기 보다는 커다란 책상이 방을 꽉 채우는 것이 좋다. 잠자는 곳과 활동하는 방을 따로 해주는 것이 최고의 조건이 될 것이다.

아이의 6인용 식탁 사이즈의 넓은 책상에서 책도 보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하자, 무엇이든 넓은 책상에서 하게 습관을 들이면 참 좋다.

책상에 상자를 준비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준다. 재료는 재활용품 중심이면 좋다. 흔한 종

이 색연필 등 보다는 조각천, 단추, 여러 뚜껑류, 여러 종이, 고무장갑 여러 끈 등등
너무도 많은 재활용 재료가 있다. 집안 구석구석 보면 우리 아이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너
무도 많다. 쓰지 않는 컵부터 오래된 숟가락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책상의 상자 안에 넣어준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유롭게 그것들을 활용해서 작
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다. 제안은 아이디어를 말한다. 구멍 난 고무장갑을 잘라서 요구
르트병 입구에 끼우면 모자가 되잖아, 그리고 그 요구르트병으로 빨간 모자를 쓴 할아버지를
만드는거야. 이런식의 제안이다.